

목포 국제축구센터 숙소 증축 '찬반양론'

市 “전국대회·전지훈련 유치 위해 객실 확대 필요”

시의회·숙박·음식업주 “지역업소 매출 감소” 반대

목포시가 추진 중인 목포 국제축구센터 숙소 증축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목포시는 “전국 규모 대회와 전지훈련 팀 유치를 위해서는 숙소 증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의회와 일부 지역민들은 “오히려 지역경제 살리기엔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목포시 등에 따르면 현재 축구센터 숙박 동은 113실에 45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지만 전국 대회를 개최하거나 성수기 때에는 객실이 부족한 실정이다.

축구센터 연인원 이용객이 6만 명이 달하고 전국 초중고 클럽 남녀 축구 왕중왕전, 월드컵전 축구대회 등은 참가선수들이 많아 연중 4~5회 정도 심각한 객실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총 사업비 8억을 들여 연면적 450㎡에 8인실 10실 규모로 증축하기 위해 2015년도 예산안에 시비 5억 6000만원을 편성,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안 제안 설명과정에서 일부 의원들로부터 “지역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게다가 시는 지난해 16억을 들여 8인실 20실 규모로 증축을 추진했다가 동일 상인위에서 단순 ‘재검토’가 아니라 ‘불승인’을 받아 무산된 사업을 1년 만에 슬그머니 규모를 축소해 재상정 시켜 번복을 샀다.

목포시의회 여인두 의원은 “지난해 16억이었던 사업비가 갑자기 8억으로 낮아진 것은 10억 원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작년 불승인 받은 사업을 사업비만 낮춰 재상정한 것은 의회 경시 풍조의 한 단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축구센터 숙소 증축 추진 소식이 지역사회 숙박업과 식당 업주들에게 전해지면서 반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은 “유독 목포시만 숙박과 식사를 축구센터 내에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있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리 많은 선수들이 오면 뭐하느냐”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목포국제축구센터 숙소 증축사업을 둘러싸고 목포시와 시의회 등이 찬반 논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국제축구센터 숙소동 전경. <목포시 제공>

입을 모은다. 또 이들은 “전지훈련지로 각광받고 있는 타 시군의 경우 식사를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조식만을 제공해 점심때면 선수들이 관내 식당으로 몰리나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호자노릇을 토포하고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지훈련 팀이나 전국 규모 대회 유치를 결정적 역할을 하는 필수 전제조건이 바로 숙소 문제인데 증축을 안 하면 대회나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기 힘들다”며 정말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한편 목포국제축구센터는 총 사업비 718억원이 투입돼 지난 2009년 8월 개장했다. 축구장 7면과 하구구장 2면, 보조구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강진군 내년 예산 2840억 편성

농업·복지 1370억 우선 배정

민간 보조금 ↓ 주민혜택사업 ↑

강진군은 24일 “내년 예산안을 사회복지와 농업분야를 크게 확대해 284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현안사업인 오금누리타운 조성사업, 수산물 토요시장 개장 사업, 농산물 직거래, 감성체험관광을 통한 군민 소득증대 예산을 우선 배정했다.

군민 소득과 직결된 농업예산은 전체 예산의 30%를 넘는 831억원으로 올해보다 28억원 증가했다.

서민 생활과 이어진 사회복지 예산은 군 전체예산의 20%에 가까운 541억원으로 올해보다 63억원이 늘어났다.

그동안 민간에 지원된 보조금도 군민 다수가 골고루 혜택을 보는 사업으로 전환해 ‘100원 택시사업’과 ‘패류 종래 지원사업’

‘상토 공급사업’ 등에 반영했다.

강진군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 일반 행정분야 예산과 각종 체육행사 규모를 축소하고 군수 재량으로 사용하는 숙원 사업비도 삭감해 소득 예산에 편성했다.

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제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반드시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강진원 군수는 “내년 재정여건은 국내외 경기 둔화와 정부지원 교부세의 축소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알뜰한 건전재정운영과 군비부담이 적은 공모사업 확대 등을 통해 이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군의 내년 예산안은 다음달 4일부터 시작되는 강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16일 본 회의에서 확정된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영암 국유림관리소 ‘사랑의 땀감 전달’ 행사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25일 장흥유치 신월 월말마을에서 광주 전남 지역의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숲사랑소년단과 함께 ‘땀감나누주기 행사’를 했다. <사진> 이날 관리소는 고구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등 57가구에 숭가꾸기 사업으로 수집한 땀감을 나눠줬다.

관리소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숭가꾸기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작업 중 생산된 10cm 이상의 목재는 산업용재로 매각하고 나머지

작은 목재를 수집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과 버려지는 산림자원 활용 효과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웃사랑과 효사랑 등 배움의 기회제공하고 있다.

땀감을 지원받은 김모(81세)씨는 “몸이 불편해 산에 나무하러 못 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산림청의 도움으로 올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전북 소식

갈 곳 없는 정읍 동학군 유해

문화재청 황토현 안장 반대

2017년 동학공원 묘역 추진

일본군에게 목이 잘린 뒤 120년간 방치됐던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해가 영면할 곳을 찾지 못하고 또다시 수년간 박물관에 보관될 상황에 놓였다.

정읍시는 25일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해를 황토현 전적지에 안장하기로 하고 문화재청에 현상 변경을 신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최근 2차례에 걸쳐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2017년까지 황토현에 조성될 예정인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의 희생자 묘역에 함께 모시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문화재청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유골은 묘역이 조성될 때까지 최소 2~3년간 전주역사박물관 지하 수장고에 그대로 보관될 수밖에 없게 된다. 유골을 모시려던 황토현은 국가지정 사적지여서 인위적인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애초 정읍시와 전주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등은 유골을 황토현에 모시기로 하고 ‘무명 동학농민군지도자 안장위원회’까지 만들어 안장 작업을 추진해왔다.

한편 이 유골은 1995년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한 창고에서 ‘1906년 진도에서 효수된 한국 동학당 수괴의 수급(머리)’이라는 글씨와 함께 발견됐으며 1년 뒤인 1996년 국내로 봉환됐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전주 풍남문 일대 휴식·문화공간 조성

내년부터 축제·행사 제한

소음·학습권 침해 해소 기대

전주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정취가 인근 풍남문으로 이어진다.

전주시는 25일 “연간 500만명이 방문하는 한옥마을의 관광객을 분산하기 위해 풍남문 일대를 휴식·문화공간으로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장의 조성 취지를 살려 풍남문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한옥마을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부터 광장에서의 대규모 축제와 행사 개최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풍남문 광장이 조성된 이후 각종 행사나 축제 등으로 소음이나 인근 학교의 학습권 침해, 상인 불편 등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풍남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행사들이 옛 도심에 있는 오거리 문화광장이나 노송천 광장 등에서 열려 주변 상권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전주,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접수

내달 16일까지 구청에 신청

공원·도로·하천·산지는 불가

전주시는 25일 “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신청을 12월 1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총 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총 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양성화 여부가 가려진다. 주거용 건축물에 일부 상업용 등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총 면적의 반 이상이 주택용도로 돼 있어야 하며, 공원·도로·하천 등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및 보전 산지 등은 양성화가 불가능하다.

건축주는 설계도와 현장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오는 12월 16일까지 구청 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전주·부안=강철수기자 knews@

무등도서관 사거리 최고 상권 참조은 빌딩 임대

2층 58평 3·6·7층 108평 주차 타워 완비

7층 참고은 피부과
입점완료
11월 22일(토) 개원예정

5층 참조은 안과
4층 한길통증의학과
2층 신한은행
1층 신한은행 푸른약국
입점운영중

문의 : 010-2007-8848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감정가이하

- 담양대덕면 산 236132㎡(71430) 공시가 9천 사할 기도원 적합 1억5천
- 금남로 가구점 대지 416㎡(126)공시가 12억7천 은행 8억 매도 11억
- 금남로 4가 대로면 대지 317㎡(97)건평 1235㎡(363) 공시지가 14억 5천 투자가치 좋음 14억, 건물은 5층과 2층 2동 있음.
- 충청남도 태안군 해수욕장 펜션 최적합지 1984㎡(600) 감정7억7400 은행5억8천 감정가로 매도나 교환원함.
- 롯데백화점 인근 시설좋은 모텔 대지 390㎡(118) 건평 1375㎡(416) 객실 33 은행 10억8천 교환가능 14억7천
-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주거지 6908㎡(2090) 대출 2억 매도 천만원
-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 땅 794㎡(240) 건물 100㎡(30) 밭장, 펜션, 민박집 적합 교환도 가능 3500만원

투자 매도 교환

- 쌍춘동 신축건물 대지 215㎡(65)건평 418㎡(126) 안집과 원룸 5개 투룸 4개 은행 1억5천 매도 6억3천
- 광산구 동산동 그린벨트 담 2638㎡(798)공시가 3840만원 매도 5500
- 조선대 앞 대로면 동명동 5층 건물 대지318㎡(96) 건평 736㎡(228) 상가와 안집, 원룸 18개 보증금 1억에 월 500천 수익 8억7천
- 운천역에서 2분거리 주택 대지 170㎡(52) 건평 97㎡(29)1억3천
- 함평군 해보면 문정사거리 코너 준주거 334㎡대출 5천 매도 1억6천
- 전원주택지 남구 임촌동 대지 575㎡(174) 매도 1억8천
- 상가와 공동주택 적합 산수시장 준주거 284㎡(87)4억
- 상가와 공동주택 적합 광산구 신촌동 284㎡(86) 2억5천
- 광산구 산정동 흙플라스 부근 2중주거지 314㎡(95) 2억 9500

임대

- 식당 운전역 4분거리 원룸 밀집지역 대지 332㎡(101) 건물 44평 전세 2천 월70비품대등 있음(관리금)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춘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서관

나주시 송촌동 자연녹지
동산대 인근 2차선 포장도로로 점 전원주택단지, 공장, 창고부지 최적!

- 지역 : 자연녹지
- 지목 : 전 및 과수원
- 면적 : 16,200㎡
- 입대가 : 3.3㎡ 당 20만

최고의 전원주택지
서구 세하동 주거지역, 주변 환경 및 조망권 최고, 더 이상 좋은 전원주택지는 없습니다.

- 지역 : 1중주거지역(2필지)
- 지목 : 전
- 면적 : ①600㎡ ②780㎡
- 매가 : 3.3㎡ 당 140만

세하동 토지
세하동 서광구역 뒤 주거지역 및 그린벨트, 도로 점, 전원주택지 및 투자가치에 좋습니다.

- 지역 :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
- 지목 : 대지 및 임야(현황:전)
- 면적 : 7,439㎡ (주거,112㎡, 녹지 6,327㎡)
- 매가 : 3.3㎡ 당 38만

준공업지역
평동공단 1번도로 끝 계획도로 점, 전 및 임야 투자적합

- 지역 : 준공업지역
- 지목 : 전 및 임야
- 면적 : 9,027㎡
- 매가 : 3.3㎡ 29만

지번문의 사절
행운(구.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송 창 석
011-642-7777

상가건물 임대 150평

농성동 상록화관 근처 현, 약품도매상 성업중

지하 1층 지상 1,2층 (총 150평)

대형주차장 완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0만원

062)367-1254
062)367-1259